

“명확한 비전 있어야 위기 속 성장... CEO부터 달라져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VCM 참석

“2분기 이후 팬데믹 안정화 대비 1위 위한 투자 과감하게 진행을 저부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

“성장이 아닌 생존 자체가 목적인 회사에는 미래가 없다. 명확한 미래 비전이 있다면 위기 속에서도 혁신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올해 첫 VCM(밸류크리에이션미팅)에서 강조한 말이다.

1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13일에 열린 '2021 상반기 롯데 VCM'은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각 사 대표이사, 롯데지주 및 4개 부문 BU(비즈니스유닛)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번 VCM은 'Rethink-Restart: 재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에서 심도 깊게 다뤄졌고, 특히 지난 성과를 냉철하게 되돌아보



신동빈 롯데 회장

고, 장·단기적으로 균형 잡힌 전략을 도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경영 지표가 부진했다. 이는 우리의 잠재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입을 뗐다. 이어 “위기 때 혁신하는 기업이 위기 후에도 성장 폭이 큰 것처럼, 올 2분기 이후로 팬데믹이 안정화에 들어갔을 때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사장단에 “각 사의 본질적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된 '2021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 참여하고 있다. /롯데그룹

인 경쟁력,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5년 후, 10년 후 회사의 모습을 임직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를 빗대어 말하며 “다른 회사가 따라갈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각 회사에 맞는 명확한 비전과 차별적 가치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실행력 제고도 주문했다. “각자의 업에서 1위가 되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과감

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DT(디지털전환) 및 R&D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 브랜드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부진한 사업군이 있는 이유는, 전략이 아닌 실행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투자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전략에 맞는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경영환경에 맞는 조직문화

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신 회장은 “기업 문화를 쇠신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며 “아직도 일부 회사들에는 권위적인 문화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시대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CEO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사 및 그룹 전체 조직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는 기업 생존 및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전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IMF, 리먼 사태 때도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우리에게 ‘위기 극복 DNA’가 분명히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과거의 성공경험을 과감히 버리고, CEO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사업 혁신을 추진해 달라”며 “저부터 롯데 변화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조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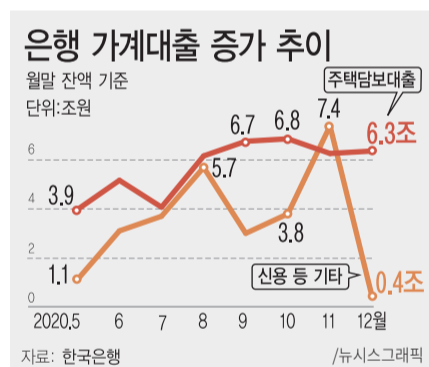
한은, 부동산·주식시장 영향

작년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들쭉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결과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급증세가 꺾인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다. 지난달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대출은 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12월 비수기에 6조3000억원이 늘어 증가세가 여전했다.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한은 관계자는 “주담대는 집담대출 취급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수요로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며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관리방안 시행과 함께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후면 카메라 매끄러운 ‘퀀투어 컷’ 디자인

>> 1면 ‘삼성 갤럭시 언팩...’서 계속

와이파이 6E와 듀얼 블루투스 안테나로 연결성도 확대했다. 스마트싱스 파인드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연결이 끊겨도 다른 갤럭시 기기를 찾을 수 있다. 초광대역(UWB) 기술도 적용됐다. 기기간 파일 공유 뿐 아니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갤럭시 스마트 태그’, 추후 디지털 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S21과 함께 갤럭시 버즈 프로도 함께 공개했다. 음질 성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을 탑재해 오디

오 경험을 극대화했다. 사용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자동으로 동작하는 등 똑똑한 기능도 더했다. 완충시 5시간, 케이스를 이용하면 18시간까지 재생 가능하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은 모바일 최우선 시대에 맞춰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누리며, 자신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며 “‘갤럭시 S21’ 시리즈는 새로운 디자인, 전문가급 카메라, 강력한 성능을 모두 갖추었으며, 각자의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중근당 코로나 치료제, 고위험군 치료 확인

나파벨탄 러시아 임상2상 결과 고위험군 사망 환자 발생 막아

중근당 ‘나파벨탄(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치료 효과를 3배 가까이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파벨탄을 투입한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근당은 이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근당은 14일 코로나19 중증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임상2상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임상적 지표를 평가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근당은 러시아 임상 2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00여명에게 10일간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약하여 조기경보점수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36명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지표인 ‘p-벨



류’가 0.012로 입증 목표인 0.05 이하에 확실하게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조기경보점수는 코로나로 인한 폐렴 환자의 치명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7점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는 사망확률이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 신뢰도를 나타내는 p-벨류가 0.05% 이하라는 것은 이 결과의 신뢰도가 95%를 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나파벨탄은 p-벨류 0.012%로 99%에 달하는 신뢰도를 확보한 셈이다.

임상 결과, 고위험군 환자에서 나파벨탄을 투약한 동안 61.1%의 증상 개선율을 나타내, 표준치료의 11.1%에 비해 확실하게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전체 임상기간인 28일간 표준치료군의 증상

개선율이 61.1%인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은 94.4%(p-벨류 0.016)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증상개선율을 나타냈다. 회복에 도달하는 기간에서도 표준치료군의 14일에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은 10일로 단축시키는 결과(p-벨류 0.008)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전체 100명의 임상중에서 표준치료군에서는 질병의 진전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4건이 발생하는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에서는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나파벨탄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증상의 악화로 인한 사망 환자 발생을 막아주는 약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근당은 러시아 임상 2상 결과 자료를 받는대로 식약처에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함께 신청할 임상 3상에서는 국내외 대규모 환자군을 통해 나파벨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도 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부분 무죄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태블릿PC 공개로 확인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약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판단에 불복, 재상고한 내용을 대법원에서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

단과 관련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셈이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추징금 35억원도 부과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